

여야 '최고 존엄' 설전... 법사위 국감 43분만에 파행

강릉 미사일 낙탄 사고 질의...김정은 北 국무위원장 명칭 논란 조정훈 "농담으로도 표현 부적절"...기동민 "맥락 자르고 중복몰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갈등을 빚었다. 전날 법사위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강릉 미사일 낙탄 사고와 관련한 질의를 하던 중,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최고존엄인가 하는 사람'이라고 지칭한 것을 두고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문제 삼은 것이 발단이 됐다.

전날 국감에서 기 의원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사람 한 분이 북한군에 의해 그렇게 무참하게 그런 피해를 당한 것인데, 그래서 저기에 뭐 최고 존엄인가 하는 사람이 공식적인 사과까지 한 사람

들'이라며 "우리는 자칫 했으면 수천 명의 인명이 원인도 모르는 채 정말 큰 참사를 당할 뻔했다"며 낙탄 사고의 책임을 물었다.

그러자 조정훈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북한의 최고 존엄이 사과했다"는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국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란 발언까지 있을 순 있다고 생각하지만 '최고존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기 의원은 곧바로 "속기록을 읽어보겠다"며 "(발언의) 취지는 '최고 존엄이라 일컬어지는 수령

들이'로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기 의원의 발언 취지 수정으로 종결되는 듯했던 '최고존엄' 발언 논란은 이날 국감에서도 시작부터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기 의원이 먼저 신상발언을 신청해 입장을 밝혔다. 기 의원은 전날 자신의 발언 속기록을 읽은 뒤 "일종의 조롱이자 야유였는데 조 의원은 앞뒤 맥락을 다 잘라버리고 '기동민 의원이 북한 최고존엄이 사과했다'는 발언을 했다"며 "이게 (국민들에게) 사과할 사안인가? 웃자고 얘기했더니 죽자고 달려드는 격이고 요즘 검찰 잣대로 보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 의원은 신상발언을 신청해 "웃자고 한 농담이라고 하셨는데 그 농담은 웃을 수가 없는 농담이고 해서는 안 되는 농담이라고 생각한다"며 "사과

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맞받아쳤다.

조 의원은 "우리는 절대로 농담으로라도 (김정은을) 최고존엄으로 부를 수 없다. 헌법수호 의무를 선서한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농담이 있고 할 수 없는 농담이 있다"며 "월북 의사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 한 사람을 피격하고 소각했는데 그것에 대한 비난에 문제가 집중되지 않고, 이상한 데로 문제가 흘러가는 것에 큰 유감을 표시한다"라고도 꼬집었다.

기 의원은 재차 신상발언을 통해 "최고존엄이란 얘기를 대한민국 땅에서 절대 써서는 안 되다는 편협한 세계관으로 어떻게 의원을 할 수 있겠나"라고 쏘아붙였고, 조 의원은 "우리 국회의원이 해서 되는 발언의 선이 있고 넘지 않아야 할 선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맞붙을 뻔했다.

기 의원의 신상발언 시간 제한이 끝난 이후에도

"전후 맥락이 다른데 앞뒤를 다 잘라버리면서 마치 기동민을 김정은의 '괴봉'으로 만들어놓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 의원과 조 의원이 때아닌 '최고존엄' 발언으로 설전을 주고받는 동안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가세하면서 장내는 소란스러워졌다.

박법계 의원은 신상발언 신청을 하면서 "조정훈 의원에 대해 한마디 하겠다. 정의롭지 않다는 걸 내가 국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동료 의원의 표현을 입맛대로 해석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박법계 의원은 밖에 나가서 성명서로 하시라"며 박 의원의 신상발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개의 후 43분 만에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민주당, 중소기업인과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납품단기연동제 촉구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의도 브리핑

“신규 반도체 설계지원센터 예산 재반영해야”

양향자 의원 국감자료

반도체 설계지원센터(이하 설계지원센터) 입주 기업의 절반 이상이 공간 부족으로 별도의 외부 사무실을 임대한 가운데 신규 설계지원센터 구축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광주 서구을) 의원이 18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기존 설계지원센터의 공간 부족을 해소하고 창업 안정기 팹리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AI반도체 혁신설계센터' 신규 구축비 20억 원을 신청했으나 내년도 예산안에는 전액 미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반도체 기업 사무공간 지원 사업은 팹리스 기업의 설계·생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초기 팹리스 기업의 사무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설계지원센터는 최대 8인 규모의 사무공간을



지원하는데 초기에 빠르게 성장하는 팹리스 회사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실제 최근 3년간 설계지원센터에 입주한 기업 20개 중 7개는 인력 증가에 따른 공간 부족으로 퇴실했다. 그나마 남아있는 입주기업 9개 중 6개는 일부 직원만 설계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다수는 별도 공간을 임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향자 의원은 "세계 50대 팹리스 기업 중 우리 기업은 LX세미콘 단 하나뿐"이라며 "3년째 세계 점유율 1% 수준에 머물고 있는 팹리스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2024년 총선, 광주 8개 선거구 유지

서구을 인구 하한 충족...화정4동 2000세대 아파트 입주로 인구 증가

광주지역은 2024년 총선에서 8개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구 인구 하한선이 위태로웠던 광주 '서구을'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신축으로 인구가 유입됐기 때문이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구을 인구는 14만244명으로 전월보다 655명 늘었다. 같은 기간 광주 전체 인구가 1541명 줄어든 가운데 서구을, 동남을(330명), 광산구갑(22명)은 늘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국회의원 1인 선거구 획정 기준은 인구 하한 13만9000명, 상한 27만8000명

이었다.

서구 7개 동을 아우르는 서구을 인구는 지난 6~7월 13만9000명 아래로 떨어졌지만, 화정4동에 준공된 1976세대 규모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8월부터 늘어나 14만명대로 올라섰다. 이 아파트에는 현재 1179세대, 3145명이 입주했으며 797세대가 미입주 상태다.

나머지 7개 선거구 인구는 동남갑(남구 11개 동) 16만8501명, 동남을(동구 13개 동·남구 6개 동) 15만840명, 서구갑(서구 11개 동) 14만7799명, 북구갑(북구 17개 동) 17만3883명, 북구를

(북구 11개 동) 24만9860명, 광산구갑(광산구 13개 동) 16만5713명, 광산구을(광산구 8개 동) 23만6016명이다.

이 같은 인구 구성으로 미뤄 선거구 기준 변동이나 개리멘터링 등 인위적 조정이 없다면, 광주 8개 선거구는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선거구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선거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2024년 4월 10일) 1년 전인 2023년 4월 10일까지 확정해야 한다. 선거구별 인구 기준일은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2023년 1월 31일이다. 광주 국회의원 선거구는 17대 총선에서 기존 6개가 7개로, 18대 총선에서는 다시 8개로 늘어났다. 20대 총선부터 동구와 남구를 합쳐 2개 선거구를 확정하는 등 현재 체계가 이어지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경례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 청문보고서 채택

시의회 "전문성 인정"

광주시의회는 18일 제31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경례(51)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의 인사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시의회는 보고서에서 "김 후보자는 20년간 여성 일자리와 인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연구하고 페미니즘과 양성평등 교육을 하는 등 전문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조직의 대표로서 활동하거나 경영 능력을 보여준 사례와 경험을 확인할 수 없어 조직경영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는 있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다양한 위원회에서 활동해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재단 차원에서 맞춤형 여성 정책을 개발하는 등 능력을 갖췄다"며 "연구소를 조직해 운영한 경험과,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소통 의지를 갖춰 업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전남대 사회학과를 졸업했으며 광주여성가족재단 교류협력팀장, 전남대 사회과학 연구소와 사회적재생산연구단 학술연구 교수 등을 지냈다. 강기정 시장이 임명하면 김 후보자는 3년 임기의 대표이사에 취임하게 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상가, 신축부지 매매

1. 대인동 156평, 롯데백화점 옆
신안동 176평, 엄마요양병원 뒤
2.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 특
타용도 변경가, 위치 좋음
3.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중
4. 매매 - 협의
5. 공동투자 하실분 모심

문의. 010-3605-5000